

멜번대교구한인천주교회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Melbourne



주임신부 : 윤기선 요셉 (Rev. Kiseun Joseph Youn)
M) 0402 686 560

주 소 : 89 Bond St. Ivanhoe VIC 3079

사목회장 : 최미라 소화 데레사 M) 0404 854 266

사무실 : 월, 수 11am ~ 2pm, 금 11am~3pm

주일미사 : 일요일 오전 11시

Tel: 03 9440 9515, Mob: 0423 532 073

어린이미사: 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kccmel@gmail.com

고해성사 : 주일 미사 15분 전

kccmel@cam.org.au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www.kccmelbourne.org.au

예비자교리: Zoom/대면 교리

[www.facebook.com/ Koreancatholic-church](https://www.facebook.com/Koreancatholic-church)

어린이 안전 & 복지에 관한 문제는 Child Safety Officers (3명)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대

제 1 독서 ㉔ 민수기 21,4ㄴ-9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제 2 독서 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화답송 시편 78(77),1-2.34-35.36-37.38(㉔ 7ㄴ)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복음환호송 시편 119(118),135

◎ 알렐루야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알렐루야

복음 ㄷ 요한 3,13-17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영성체송 요한 12,3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
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전례 봉사 안내

	9월 14일 (일) (홍) 성 십자가 현양 축일	9월 21일 (일) (녹) 연중 제 25주일	9월 28일 (일) (녹) 연중 제 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미사 해설	최미라 소화데레사	김지나 노엘라	원선희 안젤라
제 1 독서	박상현 라파엘	청년부	연승재 베드로
제 2 독서	조옥주 안젤라	청년부	박영주 글라라
보편지향기도	김지숙 로사	청년부	이승은 루시아
봉 헌	2반	3반	4반
성체분배자	김수환 요한	정성룡 세례자 요한	김수환 요한
복 사	박하선 미카엘 한나, 최인서 아가다	김영광 프란치스코 권민서 로사리아, 이애린 에리카	박하선 미카엘 이은유 아네스, 홍세나 가브리엘라
성 가	입당 30 예물준비 66, 216	성체 23, 164	파견 283
미 사 곡	자비송 : 325 아멘 : 377	보편지향기도 : 370 주님의 기도 : 387	거룩하시도다 : 327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90 신앙의 신비여 : 373 하느님의 어린양 : 328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조용식 사도요한 신부 | 제기동성당 주임

“하느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처단하지 않으시는가? 하느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과 권력, 욕망을 좇으며 거짓과 위선을 추구하고, 폭력과 살인,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며, 극심한 이기주의로 나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인권은 무시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질문이 하느님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느님의 사랑, 정의 자비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평생 겸손하게 묻고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분과 친밀함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는 것이고 구원이니, 파멸과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을 폭력과 파괴라는 악으로 되갚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자비라는 선의 길을 묻고 찾으며 추구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떳떳하게 정의를 실현하셨고,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길이었습니 다. 우리 눈에는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묻고 찾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날짜	반 봉 사	안 내
9/14	2 반	반 봉사자
9/21	3 반	반 봉사자
9/28	4 반	반 봉사자

♣ 베드로회 봉사 일정표 ♣		
날짜	봉 사	메뉴
9/14	2 반	커피/티/비스킷
9/21	3 반	커피/티/비스킷
9/28	4 반	커피/티/비스킷

◆ 본 당 단 체 모 임 안 내 ◆			
단 체	일 시 및 장 소		문 의
사 목 회	매월 넷째 주일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반장 모임	매월 첫째 주일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대철 베드로 복사단 어머니회	추후 공지		손은희 크리스티나 0433 242 390
마니피캇 성 가 대	주일 미사 전 커뮤니티 홀 10:15am 까지		문소영 소피아 0406 174 746
청 년 부	추후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주일학교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홀 및 사제관		임연희 보나 0457 258 066
주일학교 자모회	추후공지		김나영 안젤라 0423 094 789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자비의 모후	추후 공지	+
	천상의 모후	추후 공지	전수련 엠마누엘라 0423 614 598
	위로자의 모후	추후 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성서반	매 주일 Zoom 8pm		왕현경 스텔라 0421 700 386
연령회	추후공지		조옥주 안젤라 0430 282 737
어린이 복지회	추후 공지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이상원 베네딕토 0403 189 387

9월 반 모 임 안 내 요한 3,13-17		
반	일시 / 장소	반장 연락처
1반	9월 13일 (토) 9:00pm Zoom	박비주 세실리아 0430 527 837
2 & 7 반	9월 13일 (토) 6:30pm Zoom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3 반	9월 12일 (금) 6:00pm 신인균 토마스 가정	김장현 라자로 0451 155 551
4, 6, 8 반	9월 14일 (일) 12:15pm 성당 커뮤니티 홀	김수환 요한 0433 800 461
5 반	9월 13일 (토) 7:00pm Zoom	이승은 루시아 0431 208 178
6 & 8 반	4반과 함께	김수환 요한 0430 217 100
7 반	2반과 함께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 우리들의 정 성 ♥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현 금	\$600.95	\$585.70	\$575.80
교 무 금	\$500.00	\$1,850.00	\$930.00
감사헌금	\$1,050.00	+	+
합 계	\$2,150.95	\$2,435.70	\$1,505.80
성모동산 기금	\$33,069.51	\$33,069.51	\$33,069.51
☺ 감 사 합 니 다 ☺			

교무금 납부자



김중환 루카 & 안중희 리오바
서흥원 부르노 & 안중은 리디아
김수현 사베리오 & 전수련 엠마누엘라
여신 안드레아 & 손은경 아네스
박종호 미카엘 & 임은경 유스티나
채원호 안드레아 & 조옥주 안젤라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재정부(박상현 라파엘)를 통하여 책정하십니다.
0478 510 331 kccm.treasury@gmail.com

- ▶ 교무금은 매 주일 미사 전 성당 입구 테이블, 미사 후 사무실 에서 접수합니다.
- ▶ 교무금을 성당계좌로 보내실 때는 Reference에 보내신 분의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십니다.

A/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Bank:CDF(NAB) BSB:083347 A/C No: 574926224

◆ 2025년도 사목 방침

‘순례와 친교’

순례) 각 신심 단체별 3, 4, 6, 7, 8, 9, 10월 중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시니어 가을 나들이#

- 일시: 10월 4일(토)

- 장소: St Macatan's Catholic Church(순례 성당)/ Mornington Botanical Rose Gardens

- 성당에 모여서 20인승 관광버스로 9시 30분에 단체로 출발합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까지)

◆ 오늘의 봉사

미사안내는 2반 입니다.

미사 전) 미사 안내와 간식 준비

미사 후) 뒷정리

◆ 예비자 교리 교육

세례식) 12월 25일 (목요일)

교리) 매주 일요일 8pm Zoom

신자분들은 기도와 전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의 날 행사

9월 21일 본당의 날을 기념하여

O, X 퀴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께 예상 문제집을 미리 나눠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입구에 비치

◆ 책 [6.25 전쟁 1129일]

6.25 전쟁에 대한 책이 필요한신

분은 한국어판, 영문판 중에 선택하여 사목회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추석(10월5일)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형제자매를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당 입구에 봉헌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 10월 5일 11시 주일미사

제출) 10월 1일까지 사무실

◆ 시니어 디지털 학교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하여 디지털/모바일 관련하여 강의가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 홀(핸드폰 필요)

◆ 어린이 미사 안내

일시) 매주 12:30pm

대상) 중학생 이하 어린아이들

일 시	행 사 일 정	성 당 오 시 는 길 <MELWAY31 D6>
9월 21일(일) 9월 28일(일) 10월 5일(일)	본당의 날 <어린이미사 없음> 전민족 미사(본당) 전민족 미사(교구)	[250번 버스 (월요일~일요일 운행)] [350번 버스 (월요일~금요일 운행)] 승차: Queen St/ Lt Collins St Lonsdale St, Exhibition St 하차: Oriel Rd 와 Bond St 교차점

<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서 신자들이 제병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의미 >

전례상식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서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신자들은 성찬례에 쓰일 제병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그 기원은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찬례를 위한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직접 가지고 왔지요. 사제의 손을 통해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참사제이며 제물이십니다.

오늘날 성찬례를 위해 신자들이 바치는 제병과 포도주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며, 신자들이 주님의 식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희생 제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상징적 행위도 되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황 바오로 6세는 성찬례를 위한 신자들의 제병과 포도주의 봉헌을 복구하였답니다. [굿뉴스 자료실]

* 신자들 대표가 제병과 포도주를 봉헌시, 일반 신자들도 능동적으로 참여(본인이 직접 봉헌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봉헌)

<p>물리치료 Physiotherapy Clinic 곽민경 비아 0402 048 412</p> <p>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필라테스: 임산부, 체형교정 코어트레이닝 HICAPS 청구 가능 (GP 소견서, 개인보험)</p>	<p>음악 개인 레슨</p> <div>  피아노 하미경 루시아 0420 556 031 </div> <div>  바이올린 하미현 모니카 0451 996 032 </div>
<p>Chimac the Korean Bistro 전영은 카타리나 0415 786 768</p> <p>K-BBQ & Fried Chicken 95 Upper Heidelberg Rd Ivanhoe VIC 3079</p>	<p>엑심 국제 물류 장석일 에릭 0420 934 061</p> <p>수출입화물 국제운송 및 통관  exim@eximex.com.au www.eximex.com.au</p>